▣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떼제기도회 :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떼제 찬양과 기도회가 열립니다.

8월 예배 안내 : 8월 한 달간은 주일오후 청파성서학당과 수요저녁 성경공부를 쉽니다.

결혼 : 이채령 씨와 조해민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8일(토) 오전 11:30 명동라루체 4층 루아르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신앙실천 : 교회 식당에 잔반 량이 많이 늘었답니다.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만큼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예배	삼하 18:5-9 / 시 130 엡 4:25-5:2 / 요 6:41-51	2부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이소애 오미숙 이영란 이소혜 박유경 김성우 강세기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이선화 정영란 박석희 홍성식
오늘설거지봉사 : 환경부
다음주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4남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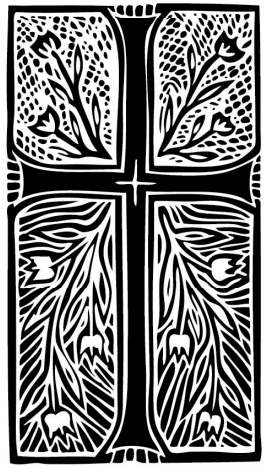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107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10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0. 전능왕 오셔서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름답게 자신을 피워내는 들꽃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끝없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자기만의 빛깔과 호흡을 유지하며, 묵묵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역사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지난날 자신의 분명한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강퍅해진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그들의 막힌 귀를 열어 피해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고후4:6 ····· 인도자

♠ 교 독 문 ····· 40. 시편96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목회기도 ····· 김기석 목사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93. 오 신실하신 주 ····· 다 함께

♠ 성경봉독 ····· I. 삼하11:26-12:13a 엡4:1-16 요6:24-35 ····· 최다미 선생
II. 사 57:14-21 김경연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 찬양대

말 씀 ····· **I. 생명의 빵** ····· 김기석 목사
II. 나는 내 숨을 쉰다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곽상준 최경미 김명하 오형일 김애경 김인걸 문영혜
김일랑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정민 이혜령 김정주 김정미 김정진
김혜정 김종락 박영신 김주영 노우영 김준호 곽혜자 김현동 오유경
류건형 이주은 문홍일 박규석 박경선 박미연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박상욱 박석희 조항미 박옥순 박옥식 박용진 김용원 방문성 박혜경
방 민 배재경 이수정 송동준 김진경 송형운 하미림 신영희 신정훈
이은미 신진식 변혜정 윤성종 김윤정 윤주원 최윤선 이경남 이계선
이소순 이근식 신영신 이민범 공재랑 이성범 권혁숙 이용현 이우원
옥귀희 이유선 이재삼 전정현 이주경 이진영 한양미 이치림 강상연
이현순 임고운 오재형 임서영 임승동 백혜숙 임주빈 최현옥 장기욱
장영숙 정복순 정연희 정재기 조문규 진정숙 조병무 송양진 주현철
강미선 최미자 최종원 최 현 최형균 강경화 한상균 한성건 정지혜
한완식 임정자 허명선 허성호 진은혜 홍소형 홍순복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무명5

감사헌금

강순배 권혁래 김용진 박효선 김재영 김태정 김홍기 김희우 박병구
김인순 박옥식 배근수 김금순 신기억 신영희 신진식 변혜정 이은혜
이정은 이지안 임광호 정선희 무명10

생일감사헌금

박용진 김용원 안정숙

녹색꿈헌금

김정주 김정미 김중수 이순정 김태호 선미숙 김향자 신영희 무명6

▣ 마음으로 읽는 글

독고다이 노숙인

홍대 근처 배달 음식점 중
어느 곳이 장사 잘되는지 어떤 메뉴가 인기 있는지
그는 잘 알고 있다/
용산 노숙자쉼터 앞에 줄 서지 않는
그는 수제가구점들 일꾼들이 문 앞에 내놓는
남은 배달음식을 순식간에 청소하는 데 일가견 있다/
잘 걸어 다니는 비둘기들에게 배운 노하우다
비둘기들이 위성도시로 떠나지 않고
특별시를 고집하는 이유도 그는 터득하고 있다/
비둘기들이 그렇듯 그는/ 자신의 나와바리를 쉼 없이 돌아다닌다
끼니때 따로 없는 초식동물처럼 틈틈이 영양분을 섭취한다/
그러나 털갈이가 필요하지 않은
진화한 인간으로 태어난 탓에 늘 겨울옷 차림인 그가
오늘은 어디서 장맛비를 피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더 젖을 것도 없을 그는 하필/ 끝내 안 벗겨지는 눅눅한 땅콩 같은
인생을 손에 쥐게 되었을까/
그마저 내려놓을 어느 날/ 행려병자(行旅病者) 되어 정식으로 치러지는
염(殮)과 화장(火葬)이라는/ 첫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때까지/
그는 아직 독고다이 노숙인(露宿人)이다

– 윤병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 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 양 …… 449. 예수 따라가며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욕망에 들떠 거칠어진 호흡을 다스리십시오. 그릇된 길에서 자신을 돌이켜 바르게 사십시오. 겸손하고 소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아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살며 나만의 호흡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길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쉼	**낮 집 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 녁 집 회 / 떼제 기도회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홍재 장로	김윤하 선생 권미숙 권사

8	**영접위원**	윤석철 최철수 정원석 백혜숙 김금순 강순배
	헌금위원	김인걸 이형숙

숲 속에 혼자 살며

몹시도 상쾌한 저녁이다. 이런 때는 온몸이 하나의 감각기관이 되어 모든 땀구멍으로 기쁨을 들이마신다. 나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이상하리만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날씨는 다소 싸늘한 데다 구름이 끼고 바람까지 불지만 셔츠만 입은 채 돌이 많은 호숫가를 거닐어본다. 특별히 내 시선을 끄는 것은 없으나 모든 자연현상들이 그 어느 때보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나는 사람들로부터 버려져 있는 이 광활한 영역을, 이 몇 제곱 마일이나 되는 인적 드문 숲을 혼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도 1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는 한 내 집 주위의 반 마일 이내에는 사람 사는 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숲으로 경계 지어져 있는 지평선을 나 혼자 독차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철로가 호수의 한쪽 옆을 지나는 것이 멀리 보이고, 다른 편으로는 숲 속의 길을 따라 서 있는 울타리의 모습 또한 멀리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내가 사는 곳은 대초원만큼이나 적적하다. 여기는 뉴잉글랜드이면서도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기분이 든다. 말하자면 나는 혼자만의 해와 달과 별들을 가지고 있으며 혼자만의 작은 세상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밤에 길손이 내 집 옆을 지나거나 문을 두드리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마치 내가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거나 마지막 인간이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러나 봄에는 메기를 낚으러 밤낚시를 오는 마을 사람들이 이따금씩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어둠을 미끼로 자신의 마음의 호수에서 더 많은 고기를 낚았던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개 빈 바구니를 들고 곧 물러났으며, '세계를 어둠과 나에게'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 나의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가장 감미롭고 다정한 교제, 가장 순수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교제는 자연물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 자연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감각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암담한 우울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건강하고 순수한 사람의 귀에는 어떤 폭풍우도 '바람의 신'의 음악으로 들릴 뿐이다. …

때때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내가 그들에 비해 분에 넘치게 신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치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면허증과 보증서를 신들로부터 받았으며, 신들에 의해 각별한 지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대체로 사람들의 사교는 값이 너무 싸다.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각자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리는 하루 세끼 식사 때마다 만나서 우리 자신이라는 저 곰팡내 나는 치즈를 서로에게 맛보인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어 서로 치고받는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의범절이라는 일정한 규칙들을 협의해놓아야 했다.

우리는 우체국에서 만나는가 하면 친목회에서 만나며 매일 밤 난롯가에서 또 만난다. 우리는 너무 얽혀 살고 있어서 서로의 길을 막기도 하고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렸다. 조금 더 간격을 두고 만나더라도 중요하고 흥금을 터놓는 의사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터인데도 말이다. …

자연은(해와 바람과 비, 그리고 여름과 겨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순수하고 자애로워서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건강과 환희를 안겨준다. … 내가 원하는 만병통치약은 엉터리 의사가 저승의 강과 사해의 물로 조제해서는, 병에 담아 마차에 싣고 다니면서 파는 물약병이 아니다. 내가 진정 아끼는 만병통치약은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아침 공기 한 모금이다. 아, 아침 공기! 만약 사람들이 하루의 원천인 새벽에 이 아침 공기를 마시려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병에 담아 가게에서 팔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침 공기는 아무리 차가운 지하실에 넣어둔다 해도 정오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 전에 벌써 병마개를 밀어젖히고 새벽의 여신을 따라 서쪽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 헨리 데이빗 소로우, 「월든」(이레) 중에서